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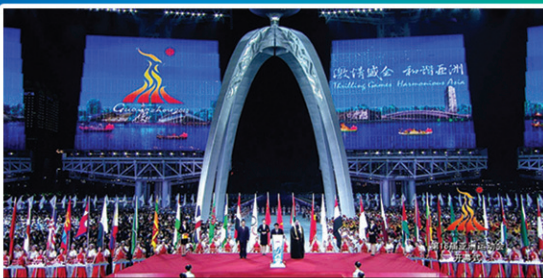
中國駐光州總領館期刊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2010年



JOURNAL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GWANGJU



激情盛会 和谐亚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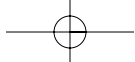


- 중국 주요뉴스
- 총영사관 소식
- 중국 경제무역 뉴스
- 특집 : 조어도 문제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 인민폐 환율문제
- 중국의 매력
- 한국에 있는 중국인
- 광저우 아시안게임
- 총영사관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2010년 12월 편역 · 발행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중국 주요 뉴스



6월 29일, 해협양안관계협회(중국대륙)과 해협 교류기금회(대만) 대표자 제5차 회담이 중경에서 거행되었다. 해협회 진운림 회장과 해기회 강병곤 이사장은 각각 <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과 <해협양안지적소유권보호협약>에 서명하였다. 9월 11일 양 협회의 문서교환으로 협의는 9월 12일 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해협 양안 경제협력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ECFA에

따라 중국대륙은 대만산 농산품, 화학, 공업, 기계, 전자, 자동차, 방직, 금속, 의료제품 등 10개 종류 539가지의 상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만은 석유화학, 기계, 방직 및 기타제품 등 4종류 257개의 중국대륙 상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7월 13일, 중국 교통운수부가 “2009 중국 항공 발전 보고”를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2009년 중국 항공물동량은 총 76.57억톤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그 중, 연해항구는 48.74억톤으로 8.6% 성장하였고, 내수항구는 27.83억톤으로 9.9% 성장하였다. 전세계 화물 물동량 10대 항구 중, 중국 항구 8곳이 포함되고, 상해항은 세계 최대 물동량을 다시 자랑하였다. 물동량 1억톤 이상 항구는 지난해의 16개에서 20개로 증가하였으며, 하문(廈門)·잠강(湛江)·호주(湖州)·강음(江陰) 4개 항구는 처음으로 1억톤급 항구 대열에 진입했다. 세계 20대 컨테이너 항구는 9개의 중국항구가 포함됐고, 그 중 중국대륙의 항구는 7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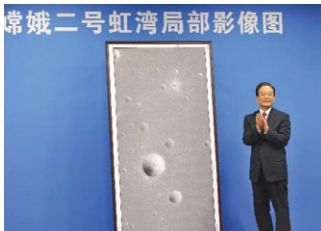


8월 8일 새벽, 중국 감숙성(甘肅省) 주곡현(舟曲縣)에서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 재해를 일으켜 1,463명이 숨지고 302명이 실종되었으며, 전기, 교통, 통신이 모두 중단되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감숙성과 관련 부서에게 이재민의 생명 안전 보장이 제일이고 모든 방법을 써서 인명구조에 힘써주며, 이재민들을 타당하게 안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원 총리는 당일 바로 재해지역으로 출발하여 재해구조 작업을 현장 지도하였다. 8월 15일, 전국 각지 및 모든 제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하여 주곡 산사태재해 사망자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는 문천(汶川) 및 옥수(玉樹)지진에 이어 중국이 3번째로 대규모 재해 사망자를 위한 애도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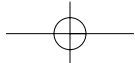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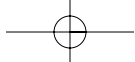
9월 6일, 심천(深圳) 경제특구 설립 30주년 경축대회가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하여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연설중, 용감히 앞장서는 심천의 진취적 정신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경제특구가 계속 운영해 나가되 더욱 성공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앙정부는 경제특구의 대담한 탐색과 실험하면서 발전하는 방식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언론은 “후진타오의 발언은 확고한 개혁의 신념을 명백히 표한 것이고, 경제특구의 미래 발전방향은 새로운 역사조건 아래 전국민의 사상해방으로 중국 미래의 사회 경제 전환 발전의 길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0월 1일 18시 59분 57초, “창어2호(嫦娥2號)” 위성을 탑재한 장정(長征)3호 C로켓을 중국 서창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하여 성공하였다. 창어2호 위성은 중국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2번째 달 탐측위성이고 “창어1호”보다 기술적 개조를 통하여 결정적 기술검증을 실시하여 달에 착륙할 경험을 쌓게 될 것이다. “창어2호”는 약 112시간의 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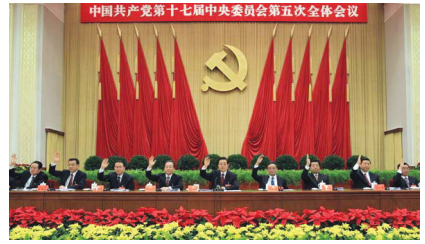


을 거쳐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고, 2~3번의 궤도수정 및 3번의 제동에 성공하였으며, 달과 100km에 떠러진 원 궤도에 진입했다. 10월 27일, 중국 유인우주선 프로젝트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 유인우주정거장 프로젝트는 이미 공식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0년쯤에는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대형 국가급 우주실험실을 건립할 예정이다. 11월 8일,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창어2호” 위성은 “창어3호” 위성의 달 착륙 선정 지역인 Sinus Iridum분지의 사진을 발표하였고 원자바오 총리는 사진 제막식을 참석하였다.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7회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거행되었고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12·5”규획(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집중적 토론과 심의를 통해 중국 향후 5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12·5”규획의 핵심내용은 “경제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이고 중국 경제사회발전 방식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로써 몇 년후 중국 발전방식의 전환은 “인본, 녹색, 창신, 화합”의 이념으로 경제시장화, 정치민주화, 사회화합화, 생태문명화 및 가치관의 선진화와 다원화를 추진할 것이다.



10월 31일, 2010 상하이엑스포 폐막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하고 폐막을 선포하였다. 총 184일간의 상하이 엑스포는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중국에서 열린 또 하나의 국제 행사였으며, 또한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열린 등록 엑스포이다. 상하이 엑스포 관람자는 총 7,308.4만명이었고 1,200여개 해외공연단이 연출하였으며, 각종 문화공연 활동 22,900차례로 엑스포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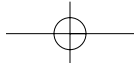
11월 1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에 도착하여 제5회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한국 이명박 대통령,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및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견을 가졌다. 후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회견시 한국이 상하이 엑스포에 보낸 지지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한국 여수 엑스포 성공을 축원하였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또한 신흥공업국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G20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중국은 한국과 함께 서울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표하였다. 후 주석은 현재 중한관계 발전태세가 매우 양호하고 양국 경제 무역이 강한 회복세로 보이고 있으며, 인적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한 양국은 상호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협력동반자이고 중국은 한국과 같이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 전면적이고 안정적인 심도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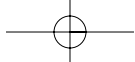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상하이 엑스포의 성공을 축하하였으며, 또한 광저우아시안게임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하였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서울G20 정상회의에 보내준 지지에 감사를 표했으며,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발전 유지는 아시아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표하였다. 중한 양국의 정치, 경제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사회각계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신뢰를 쌓아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하였다. 후 주석은 한반도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일관하게 지지하고 이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측의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여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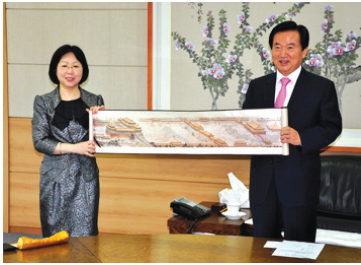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제16회 아시안게임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성공적으로 거행되었다. 이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20년후 다시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었다. 16일 동안에 아시아 총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선수 1만여명이 자신의 몸과 의지의 한계를 넘어 세계 신기록 3개, 아시아 신기록 15개 및 아시안게임 신기록 27개를 세웠다.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199개, 총 메달수 416개 획득으로 중국 대표팀 사상 최우수 성적을 달성했으며, 8회 연속 아시안게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국대표팀은 금메달 76개, 총 메달 수 232개로 일본을 이겨 2위를 차지했다. 제17회 아시안게임은 2014년 한국 인천시에서 거행될 것이다.

11월 15일 “TOP 500” 국제슈퍼컴퓨터 콘퍼런스(www.top500.org)가 최신의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이 개발한 슈퍼컴퓨터 “티엔허(天河)-1A”가 1초당 2,570만억의 연산처리 기능으로 세계 가장 빠른 컴퓨터로 선정되었다. 이 슈퍼컴퓨터는 20만개 코어를 탑재하여 연산처리 최대치가 1초당 4,700만억을 기록했다. 최근 계속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오크리지 국가실험실(ORNL)의 “Jaguar” 슈퍼 컴퓨터는 1초당 1,750만억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서광회사의 “성운(星雲)” 컴퓨터는 1초당 1,270만억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총영사관소식



7월 16일, 염봉란 총영사는 신임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방문했다. 염총영사는 강시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하여 전면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해왔다고 회고했다. 또한 중국 총영사관은 광주시청과 함께 광주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길 바라고 있으며, 강시장은 총영사관의 업무발전과 광주시에 살고 있는 중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리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강시장은 염 총영사의 방문에 감사하며 광주시의 광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의료보건 등 영역의 우세를 소개하고 중국기업의 투자창업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광주시가 정읍성 국제음악제 등 행사를 통하여 더욱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표했다.



지역의 대중국 교류와 협력, 인적왕래 및 이 지역의 대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총영사관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대답했다.

8월 31일,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회장은 염봉란 총영사를 방문하고 인터뷰하였다. 염총영사는 중국의 발전 성과와 양국 관계에 대하여 소개했고, 특히 광주·전남

8월 31일, 염봉란 총영사는 “광주중국어교사회”를 위한 친선모임을 하였으며, 장휘국 후임교육감과 교사회 이태영 회장 및 광주시내의 중국어 교사 30명이 참석하였다. 염 총영사는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 홍보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총영사관은 광주시의 중국어 교육 사업을 넓히고 양국 청소년들간의 이해와 우의 증진이 되도록 광주 중국어 교사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표했다.



9월 17일, 중국총영사관은 “중국유학생 영사·안전·우수 해외국민 양성 간담회”를 거행했으며, 염봉란 총영사와 중국유학생 회장 및 각교 중국 유학생 300여명이 참가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 김진희 과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영택 과장, 총영사관 법률고문 대표 등이 축사를 하였다. 간담회에는 영사보호 상식 및 법률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 안전예방의식, 법률준수와 현지 민속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의 질문을 대답했다.



9월 20일 “2010 중국건국기념 및 추석경축 리셉션”이 거행되었으며, 현지 화교, 중국기업 대표, 교사, 유학생, 결혼 이민자와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총영사는 지난 1년간 중국의 경제발전과 금융위기극복, 자연재해구조 등 상황을 소개하고 현지 중국 국민들이 지진 이재민에 보내준 동포애와 모금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한 총영사관은 “인본주의, 국민을 위한 외교”의 이념으로 중국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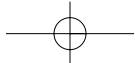
9월 28일, 중국총영사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61주년 경축리셉션”을 거행하였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정순남 전남부지사, 양성철 광주경찰청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 각계 한국 인사와 화교 유학생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염총영사는 중국이 사회발전과 경제건설 등 분야에서 거둔 성과 및 세계금융위기 극복과 지진구조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강시장 등은 축사를 통하여 중국건국 61주년을 축하하였다. 염 총영사는 총영사관을 대표하여 중·한 우호를 추진해 오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이길도 광주시장애인체육회부회장에게 “중·한 우호공헌상”을 수여해 격려와 감사를 표하였다.



10월 25일, 광양만 자유경제구역청의 초청으로 염봉란 총영사는 최종만 청장을 회견하고 현지답사를 하였다. 최청장은 경제구역의 연혁, 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중국기업의 투자와 총영사관의 협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염 총영사는 방문을 통하여 광양만의 우수한 투자환경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중국기업의 입주와 관련한 면에서 협조하겠다고 표했다.



10월 29일, 염봉란 총영사는 광주경영자협회 조찬회를 참석하여 중국경제와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염 총영사는 중국의 발전성과 현재 주요문제점과 향후의 발전잠재력을 소개하였고, 중·한 양국간의 무역, 투자, 인적왕래 등 다분야의 교류와 협력 현황을 소개·분석하였으며 질문도 대답했다. 광주·전남지역 기업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중국 경제 무역 뉴스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

11월 15일,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 전 구간 개통, 2011년 10월 1일 전 후 공식 운영이 시작 한다고 중국 철도부는 발표했다.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은 2008년 4월 착공하여 전체길이 1,318km, 총 투자규모는 2,209억위안을 초과하였으며, 연선 지역의 인구는 대략 전국의 1/4, GDP도 전국의 약 40%이다. 운영이 시작되면 차세대 전력기차 운행시속이 380km이며,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의 열차 운행시간이 현재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며, 수송능력은 매년 8000만 명으로, 현재 베이징-상하이선의 여객운송 능력의 두배 이상이 될 것이다.

중국 최초로 PPP로 경제 규모를 계산

중국 <재경>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은 곧 최초로 세계은행 조직의 국제비교항목(ICP)에 전면 참가하고, 중국의 GDP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기타 각국과 비교가 더 쉬워진다. 최근에 중국 국제비교항목 TF는 구성되고, 국가통계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 위 등 10개 부문이 참여했다.

ICP는 전세계적 통계협력 항목이다. 주요목적은 각종 화폐의 구매력 평가를 추산하는 것이다. PPP의 사용을 통하여 각국 국내 총생산(GDP)을 통일된 화폐단위로 표시함으로써 각국의 실제경제 규모와 조직을 비교 평가했다. 2011년은 전세계가 ICP활동의 조사기준의 해가 될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전세계 약 180개 국가와 지역에서 ICP 조사를 동시 시작하여 2013년 말에 끝날것으로 예기된다.

2007년 12월 세계은행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PPP로 계산한 경제규모는 전세계의 9.7%의 비중을 차지하고, GDP로 계산한 경제규모는 전세계의 5%의 비중을 차지한다.

10대 정유기업내 선정 공포, 정유 생산능력 되려 과잉초래

<재경>지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에 접어들면서 중국 각지에서 “디젤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서 보여 주듯이 2009년 중국원유 총 수요량이 약 3.93억톤이며, 그 중 연간 원유생산량이 1.89억톤이고, 수입량은 2.038억톤이었다. 중국원유 1차 가공능력은 4.77억톤에 달하며, 세계 2위를 차지했고, 정유능력은 이미 과잉상태로 2009년을 마감하였다. 게다가 중국의 기존 정유생산능력과 향후 2년 건설 중인 생산능력이 합쳐 5,000여만 톤에 달하고, 정유생산능력의 과잉상태는 심화되고 있다.

사실상 신세기 첫 10년에 진입하면서 중국 정유능력은 연평균 6.3%로 증가해 왔다. 오늘날 중국은 천만톤급 정유사 18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정유생산능력이 2.25억톤에 달하며 이는 전국 수요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중 TOP10 정유기업의 정유능력은 합계로 1.445억톤이다. 이밖에 1천만톤급 정유시설도 건설 중이다.

중국 GDP 2분기 연속 일본을 초월

일본 내각부는 어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일본의 금년 3/4분기 국내 총생산(GDP)은 3.9% 증가하고, 1,372억달러에 달했다고 신화사가 보도했다. 3분기 중국 GDP를 환산하면 1,415억 달러로 중국은 2개 분기 연속 일본을 넘어 세계 제2경제체가 되었다. 그러나 금년 9개월간의 GDP의 통계를 비춰보면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제2경제대국이다.

중국 경제규모는 올해 2분기부터 일본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2분기 일본 GDP총액은 1,28조 달러이고, 중국 GDP는 1,33조 달러이었다. 분석에 의하면 조만간 일본경제는 한단계 하락할 것이고, 중국경제는 2011년 9~10%의 성장율을 유지할 것이므로써 중국의 GDP는 조만간 일본을 뛰어 넘을 것이다. 그러나 1인당 평균 GDP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차이가 아직 매우 크고 선진국이나 중진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30개 도시 부동산 구입 제한

11월 10일 란저우시(蘭州市)는 <주택 가격의 진일보한 조정에 대한 의견>을 통과했다고 신화통신사가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현지와 외지주민은 란저우시에서 주택 1채만을 구매할 수 있고, 18세 미만의 주민은 현지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란저우시는 “구입제한” 계획 실행을 하게되는 16번째 도시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구입제한 대책”을 실시한 도시는 30개가 넘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국무원은 일반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비교적 큰 도시에서 구입제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부는 주로 연해지역 도시를 집중 감독하고, 다음 단계는 충칭(重慶), 우한(武漢) 및 시안(西安) 등 2선 도시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 주택 1채만 구매 가능

신화사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11월 15일 중국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와 국가외화관리국이 <외국기구와 개인의 주택구매 진일보한 관리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중국에서 오로지 자가주택 1채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외국기구의 지사나 대표기구는 등록지정된 도시에서 비주택 건물만 구매가 가능하다.

중국은 2009년 사치품 소비 1,556억 위안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중국내 소비자는 사치품 구매(서비스, 호텔, 식당, 주류, 리무진, 관광, 개인보트, 개인비행기와 관계없는)에서 소비된 금액은 전년대비 150억위안 위안이 증가했고 1,556억위안 위안에 달했다. 그 중 56%는 외국에서 소비되었고, 국내 소비는 증가가 지속되지만 여전히 44%밖에 안되었다.

세계 각국을 보면, 중국 사치품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시장의 소비 증가는 경제회복 속도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옛날의 사치품 소비 대국이었던 일본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다.

특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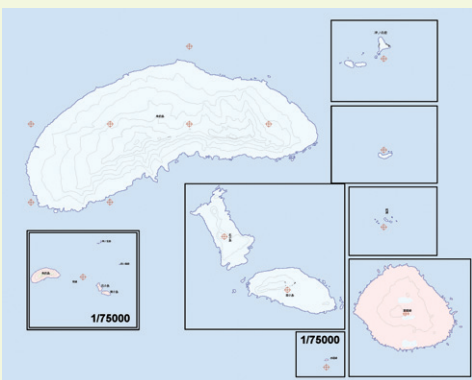
釣魚島 문제

2010년 9월 7일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 순찰선이 조어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과 충돌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본 순찰선이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8일, 일본측은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고 일본 영해 내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면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표하였다. 10일, 오키나와현(沖縄縣) 나하시검은 중국 선장의 체포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13일, 중국정부의 강력한 교섭으로 일본은 불법적으로 체포한 중국 선원 14명을 석방하였지만 중국 선장은 여전히 구속에 있었고, 19일에는 구속기간을 29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중국은 일본측에 중국선장의 석방을 수차례 강력히 요구하였다. 21일,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뉴욕에서 일본이 조어도 해역에서 중국 어민과 어선을 구속한 것은 분명 불법적이고 불합리적인 행동이라 국내외 모든 중국인을 분노시켰다. 일본 정부는 조건없이 중국어선 선장을 즉각 석방하고 현재 중·일 관계 국면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표하였다. 24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검은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하기로 선포하였다.

9월 23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일본 마에하라 세이지 신임 외무상과 회견시 이번 사건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 하였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만약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더욱 심해진다면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비좁은 조어도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중·일·미 등 대국들의 신경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조어도는 도대체 어떤 섬인가? 조어도 문제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1. 조어도는 중요한 자원과 전략 가치를 가진 섬



조어도열도(釣魚島列島, 대만은 다오위타이 열도,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 칭함)는 중국 대만 동북쪽 약 92해리의 동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제도로 주로 조어도(釣魚島), 황미서(黃尾嶼), 적미서(赤尾嶼), 남소도(南小島)와 북소도(北小島) 및 작은 돌섬으로 이루어지며, 총 면적은 6.3km²이고 그 중 조어도가 4.3km²로 가장 크다. 조어도 열도는 중국 대만과 똑같은 지질 구성이고 대만과 팽호(澎湖)열도, 주산(舟山) 군도와 같은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본의 류큐군도와는 2000m나 깊은 해구로 차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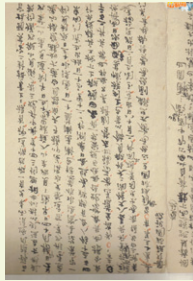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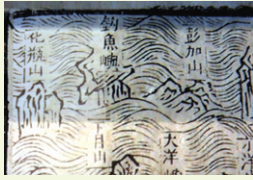
조어도 인근 해역은 매우 풍부한 어업 자원이 있고 연어획량은 15만톤에 달하고 중국 어민이 대대로 이곳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왔으며, 섬 위에는 중국어민들이 옛날에 세운 부두가 있었지만 후에 일본에 의해 철거 당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위원회(ECAFE)는 이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학술조사의 결과, 조어도를 비롯한 동중국해 일대 해역 해저대륙붕에는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그 양이 최고 1,095억 배럴에 달하고 이라크의 석유 보유량과 견줄 정도이다. 조어도를 점유하게 되면 일본의 EEZ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며, 조어도를 기점으로 하여 일본은 중국과 동해 대륙붕을 나

뉘 20여만km²의 해양국토를 더 취득하며 동중국해 석유자원의 절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조어도는 류큐군도와 대만도와 가까워서 매우 중요한 군사지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2. 조어도는 오래전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

예로부터 중국은 논쟁할 여지없이 조어도의 주권을 갖고 있었다. 명나라시대의 서적에는 “조어대(釣魚臺)”라는 지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중국은 먼저 조어도의 명칭을 지었다. 1403년(明 永樂元年)의 《順風相送》책에는 “釣魚嶼”라고 기재되어 있고, 1534년 명나라 陳侃은 《使琉球錄》에서도 조어도를 기재하였다. 1562년 명나라 절강제독 호종헌(胡宗憲)이 작성한 《籌海圖篇》에서 연해산사도(沿海山沙圖)에 중국 연해의 섬들이 표기되었는데 그중에도 “釣魚嶼, 黃尾嶼, 赤嶼” 등이 있어 조어도가 당시 명나라의 영토방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청나라 때에도 1683년 류큐에 출사한 史枉楫가 쓴 《使琉球雜錄》과 1756년 출사한 周煌이 쓴 《琉球國志略》은 중국과 류큐국의 국경선은 조어도 남쪽 해구 일대이며, 조어도의 각 섬은 모두 중국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1719년 淸 康熙帝가 파견한 류큐책봉사절 徐葆光이 쓴 《中山傳信錄》중에는 당시 류큐로 가는 사절의 해상로는 福州에서 출발하여 花瓶, 澎湖, 釣魚島 북측을

경과하여 赤尾嶼를 지나야만 류큐국의 변경선인 姑米山에 도착한다고 나와 있다. 1863년 胡林翼, 嚴樹森 등이 그린 황조일통여도(皇朝一統輿圖)는 한자로 釣魚嶼, 黃尾嶼, 赤尾嶼 등이 표기되어 있고 일본이나 류큐국에 속한 도서는 모두 일본어로 표기하였다. 1893년 淸 西太后는 조어도 등 세 섬을 약초 채취지로 당시의 郵傳尙書 盛宣懷에게 하사했다. 일본은 조어도는 1884년 일본인 다쓰시로 고가(古賀辰四郎)가 발견한 무인도라고 선포하였는데 그 때는 이미 중국문헌의 기재보다 500년이나 늦은 것이다.



사실상 일본은 원래 조어도가 중국 영토임을 인정했다. <日本外交文書> 18권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지사는 1885년 9월 22일 공문서에 "지우미즈섬, 지우창섬 및 어조섬(바로 조어도열도)은 <中山傳信錄>중 기재되어 있는 조어대, 황미서, 적미서과 같다"고 보고하였다. 1885년 일본의무상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편지에서는 ".....오키나와현과 淸國 福州 사이에 분산되어 있는 무인도, 지우미즈섬의 두개의 섬(바로 조어도열도)..... 이 섬들은 청국에 더 근접해 있으며, 청국에는 이미 명칭을 지었다. 최근 청국 신문 등은 우리정부가 대만 주변의 섬들을 탐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청국이 우리 정부를 의심하여 수차례 경고했다"고 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당시 조어도는 중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이노우에가 쓴 <센카쿠열도-조어도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는 일본이 조어도에 손을 뻗기 전에 그 곳은 무인도가 아닌 중국 영토라는 내용이 있다.

폴리처수장자인 뉴욕타임지의 저자 크리스토퍼(Nicholas D. Kristof)가 최근 발표한 글에는 "Chinese navigational records show the islands as Chinese for many centuries, and a 1783 Japanese map shows them as Chinese as well."라고 밝혔고 "In reality, of course, there is zero chance that the U.S. will honor its treaty obligation over a few barren rocks. We're not going to risk a nuclear confrontation with China over some islands that may well be China's,"라고 강조했다. (참고: <http://kristof.blogs.nytimes.com/2010/09/10/look-out-for-the-diaoyu-islands/>)

3. 일본의 불법적 조어도 강탈

1895년 청일전쟁 후 중·일<시모노세키조약>에 따라 대만 및 조어도 등 주변 도서들은 일본에 강점되었다. 1943년 12월 1일, 중·미·영 3국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여 "만주, 대만 및 팽호열도 등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영토를 중국에 반환시킨다"고 선포했다. 또한 1945년 7월 26일, 중·미·영 3국은 포츠담선언에서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2차대전이 끝나자 조어도는 대만과 함께 반환되었어야 하지만 1947년부터 미국은 조어도와 류큐군도에 대하여 18년간 신탁통치로서 행정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냉전의 시작으로, 1951년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여 류큐군도 및 조어도의 시정권을 일본에 넘겨주기로 했다. 1970년 6월 17일, 미·일<오키나와 반환조약>이 체결되어 조어도를 오키나와현으로 편입시켜 일본으로 공식적으로 넘겨졌다. 이로서 조어도는 여전히 일본이 강점하고 있다.

4. 중국정부의 입장 및 민간 "조어도 수호운동"

비록 중·일 양국은 조어도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중·일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중·일 국교정상화 회담"시 일본 측과 조어도 문제를 이후에 해결하는 것으로 상호양해를 달성하였다. 덩소핑(鄧小平)은 1978년 "조어도 문제는 중·일관계의 전면적 국면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세대는 해결할 지혜가 부족하면 더욱 총명한 우리 후손들이 양국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해법을 찾아 낼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979년 6월 중국 정부는 일본측에 공식적으로 조어도 주변 자원의 공동개발 계획을 제시하면서 중국은 "쟁의보류, 공동개발" 식으로 이웃 국가와의 영토와 해양 권익 쟁의를 해결하지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쟁의보류, 공동개발"이란 의미는: 1. 우선 주권이 중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2. 영토분쟁의 해법이 없는 상황에

서 우선 쟁의를 보류하는데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3. 관련 지역의 자원을 공동개발을 실시한다. 4. 공동개발의 목적은 협력을 통해 상호이해를 도모시켜 주권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동시에 중국정부와 국민들의 조어도 수호 운동은 끊이지 않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된 후, 주은래(周恩來)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이 조약의 모든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석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모두 불법이고 무효적인 것이며, 중국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포하였다. 1971년 미국은 조어도를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넘겨준 불법행위는 전세계 중국인들의 조어도 수호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1970~71년, 일년 미만의 동안에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 각지에서 수십개의 "조어도 수호"조직을 성립하고 간행물도 출판하였다. 대만대학교의 학생들은 대규모 시위하고 일본의 조어도 강점을 항의하였는데 현 대만 지도자인 마잉주는 바로 당시 활동 조직자였다. 1971년 1월



29일, 중국대륙 및 대만 유학생 2,000여명이 유엔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조어도를 수호하자고 외쳤다. 2주일 후, 홍콩 교수들과 학생들은 "홍콩 조어대 행동위원회"를 성립하여 데모를 벌였다. 1971년 4월, 대만 <대학>지는 학자와 기업주 93명이 공동서명한 <조어도문제에 관한 우리의 의견> 글을 발표하고 4,000여명의 대학생들과 타이베이시(臺北市)에서 시위를 벌였다. 1972년 5월 13일, 홍콩시민 2,000명이 일본과 미국 영사관 앞에서 모여서 시위를 벌여 미국이 일본에 조어도를 넘겨준 불법행위를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러한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에 미국은 부득이하게 일본에 "행정관할권"만 넘겨주고 조어도의 주권 문제는 "관련 당사국 사이에 해결한다"고 성명하였다.

근년이래도 중국대륙, 대만, 홍콩과 해외 중국인들의 민간 조어도수호 운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청년사가 1979년에 조어도에 헬기착륙장을 설치하고, 1990년에 등대를 세운 행동은 중국으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1996년 9월 26일, "홍콩 조어도수호행동위원회" 회원인 천위상(陳毓祥, David Chan)등 5명이 조어도 해역에서 바다에 투신하여 시위했는데 천위상이 당장 사망하였다. 9월 29일, 홍콩시민 5만여명은 빅토리아공원에서 촛불집회를 갖어 천위상을 추모하였다. 10월 6일, 대만과 홍콩 애국인사들은 대만에서 어선 수천 척을 임대해 조어도로 출발했다. 어선의 수량이 많아 일본은 막지 못했고, 10월 7일 참여자들은 섬 상륙에 성공했으며, 조어도는 중국땅임을 주장 선포하였다. 2003년 12월 26일

중국은 "세계 중국인 조어도수호 포럼"을 거행하여 "중국민간 조어도수호 연합회"를 성립하였다. 2004년 3월 24일 중국대륙의 馮錦華 등 7명이 조어도 상륙에 성공하였다. 2008년 6월 15일, 대만 애국인사 12명은 "전가복호" 배를 타고 조어도를 향해 주권을 선포하였으며, 대만 해양순찰과출소 군함의 보호하에 조어도를 한 바퀴 돌고 귀항하였다. 2010년 9월 13일, 홍콩과 대만의 애국인사는 "감은99호"를 타고 조어도로 출발하여 중국의 주권을 선포하였다.

결론

예로부터 중국 영토인 조어도는 현재 여러가지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이 강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 국민은 조어도를 수호하고 되찾기 위한 노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조어도 주권 분쟁에 대하여 중·일 양국 정부간의 솔직하고 냉정하며 실질적인 협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일본은 부단히 분규를 야기시켜 중국 영토를 병탄하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천위상 열사
David Chan

중 인 교 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중국 상하이의 제일 변화한 거리인 화이하이중루(淮海中路)의 한 뒷골목에는 길푼 가로수 옆에 오래된 독특한 건축물이 자리잡고 있다. 여기는 바로 “한국 민족 독립운동의 성전”으로 불리는 곳, 즉 상하이 루완구(盧灣區) 마당루(馬當路) 306농(弄) 4호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옛 터이다.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한 후 한국의 독립운동 기운은 점차 거세졌다. 결국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다음 독립운동 세력은 국내에서 탄압받게 되자 독립운동의 새 희망을 찾기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 1919년 4월 10일 프랑스 조계인 진선푸루(金神父路 현재의 루이진(瑞金2로) 22호에서는 한국 각지와 해외 망명한 한인대표대회가 거행되고 참석한 독립운동가들은 29명이었다. 그들은 상하이에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더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4월 11일에는 제 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이승만(李承晩)을 국무총리로 하는 임시정부 내각을 출범시키고 임시헌법과 선서문도 선포했다.



그 해 9월에는 사페이루(霞飛路) 321호의 임시청사에서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소집됐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된 “대한국민 의회”와 서울에서 성립된 임시정부를 상하이의 임시정부에 통합시켰다. 이로써 상하이의 한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의 최고 지휘부와 한민족 최고 대표기구가 되었다.

중국인 임시정부에 대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창설자인 쑨원(孫文)은 한국 임시정부 성립한다는 소식을 받고 바로 중국 사회 각계가 한국 임시정부에 경제원조를 제공하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 임시정부 요원인 박정일(濮精一, 즉 朴贊翊)은 “김구 선생이 상하이 한국임시정부 경찰청장 겸 한교회(韓僑會, 한인회) 회장을 역임할 때 중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

1921년 쑨원은 광둥(廣東)에서 군벌들을 타도하기 위한 중국 호법(護法) 정부의 비상대총통(非常大總統)에 취임했다. 그는 국민급의 예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사인 신규식(申圭植)



선생을 접견하여 호법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합법적 정부로 승인했다.

쑨원이 타계한 후에도 중국국민정부는 그의 “약한 민족을 돕고 자치(自治) 및 자결(自決)을 하게 하자”는 유지를 계승하며, 한국 임시정부에 지속적으로 크게 도와 주었다. 1925년에는 장제스(蔣介石)의 명령으로 중국의 황푸(黃埔) 군관학교 및 운남강무당(雲南講武堂)에 한국임시정부가 추천하는 학생을 입학시키도록 하는 파격적 결정도 내려졌다. 이렇게 해서 1926년 황푸군관학교 우한(武漢) 분교에는 드디어 한국 특별반이 개설되었다. 한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인 이범석(李范奭) 총리는 바로 운남강무당 출신이다. 1933년 5월, 장제스는 김구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고 중국 국민정부가 한국 임시정부를 위해 군사 인재를 양성해 주기로 했다. 이후 중국 국민정부는 낙양(洛陽) 군관훈련학교에 기지를 마련하고 한국을 위해 100명의 군사인재를 훈련시켰다. 이밖에 김구 등은 매월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며, 한국 망명인사들의 귀국투쟁 경비는 역시 중국 측에서 많이 받았다.

일본의 침략 때문에 한국임시정부는 중국의 도움으로 청사를 여러 차례 옮겼고, 상하이에서만 무려 7번이나 이전했다. 1926년 12월에는 바이라이니멍마랑루(白來尼蒙馬浪路)의 푸청리(普慶里) 4호(현재의 마당루 306농 4호)로 이전했으며, 이어 상하이에서 난징(南京)으로 철수했다. 1937년 11월말에 중국 국민정부의 이전에 따라 난징에서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 카이푸구(開福區) 시위안베이리(西園北里)로 이전했고, 창사 정부에서 열렬한 환영과 사심 없는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1938년 겨울, 전쟁의 불길은 창사에도 이르러 갔다. 이에 1940년 5월 한국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장제스에게 임시정부를 충칭(重慶)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했다. 충칭 정부는 한국 임시정부와 각 독립운동 당파,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충칭 교외의 투차오(土橋)에서 “한인촌”을 만들어 주었고 자오즈란야(棗子嵐垭)에 임시정부 청사로 지정했으며 한국인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까지 만들어 주었다. 1940년 9월 중순, 한국임시정부는 충칭으로 이주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성립되었고, 1945년 해체를 선포했으므로 중국에서 무려 26년 동안 계속 항일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국정부의 대대적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의 항일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정 정 공 고

본 소식지 2010년 제2호 “총영사관 소식”란에 4월 28일 소식 중, 총영사관 지정법률사무소 “정도 법률사무소”는 “바른 길 종합 법률사무소”로, “정의 법률사무소”는 “바른 법률사무소”로 정정하여 공고한다.

중 국 스페 션

인민폐 환율제도 및 인민폐 환율절상 문제

1948년 12월 1일, 중국인민은행이 설립되었고, 중국에서 통일 화폐인 “인민폐(人民幣)”를 발행하였다. 1949년 1월 18일 중국인민은행이 처음으로 인민폐 환율을 선포하였다. 수십년 동안의 모색과 실천을 통하여 중국은 비교적 완벽한 인민폐환율제도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인민폐 환율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인민폐 환율제도

중국은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여러가지 화폐를 참고하여 조절하고 또한 관리가능한 환율변동체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환율 변동을 조절하고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2. 대외무역의 균형여부에 따라 환율 변동의 폭을 조절하는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3. 단일적인 외국화폐가 아니라 여러가지 화폐를 참고하여 조절한다.

인민폐 환율 개혁의 목표

시장에 따라 관리 가능한 환율변동체제를 구축·개선하여 인민폐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시킨다.

근년이래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됨에 따라 인민폐 환율문제는 서양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쟁점화제로 부상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경솔하게 인민폐 환율이 자국의 제조업 경기불황의 원인으로 삼아 중국에 압력을 주어 인민폐 환율절상을 강경하게 요구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자국민들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초점을 옮기거나 국내 선거를 위하여 제조업 기업들의 투표와 지지를 얻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민폐 환율문제는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문제가 다 된 것이다.

올해 4월 13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회견했을 때, 인민폐환율제도 개혁은 중국 자체 경제발전의 수요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며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표하였다. 10월 6일, 윈자바오 중국총리는 EU를 방문 기간 중, 인민폐환율은 경제문제이고 정치문제로 전환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 인민폐 대폭 절상시킬 조건이 없어서 인민폐 20%~40%로 상승하면 중국에서 수많은 기업 부도, 노동자 실업과 사회 불안정 상황을 일으키게 되어 전세계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인민폐 환율제도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 목적은 바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여러가지 화폐를 참고하여 조절하고 또한 관리가능한 환율변동체도를 구축하여 인민폐의 자유성을 확대시키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인민폐 상승의 한국에 대한 영향

이론적으로 보면 인민폐가 상승하면 한국제품 가격의 인하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이다.

중국은 전형적인 가공무역국으로써 인민폐가 대폭 상승되면 수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 다시 가공생산하고 수출될 공업 원자재와 기계 부품 제품이 대부분이고 직접 소비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인민폐 상승으로 수출이 쇠퇴되면 한국 수출기업들도 큰 충격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중·한 양국은 원자재·노동력·기술수준 등에 큰 차이가 나 제품 가격과 품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상품의 가격이 인상되어도 한국에는 대체할 국산품이 없을 것이다. 이로써 인민폐 환율 절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가져오는 반면, 중국산 원자재 및 노동력 가격의 인상으로 한국기업에게 큰 압력을 주며 중국산 소비품의 가격 인상으로 한국의 일반 가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과 한국은 경제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있어서 인민폐 환율절상으로, 중국경제가 부진하면 한국경제도 심중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전자제품, 가전, 통신업 등이 중국 내수시장 불황에 위축될 것이고 해운, 물류업 등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독자님께

저희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이 편역한〈중국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는 발행된 이래 광주·전남 지역의 각 기관 및 시·도민들의 환영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

〈총영사관 소식지〉내용은 완전히 한국어로 작성되었고, 중국 주요 뉴스, 총영사관 소식, 중국 경제무역 정보, 중국 스페셜, 한국에 있는 중국인, 중국의 매력, 중한 교류, 총

영사관 공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식지는 계간이고 전부 무료로 업무 지역 내의 각 기관과 민중들에게 증정되는 것이다.

〈총영사관 소식지〉는 PDF파일로도 제작되어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총영사관 소식지"란\(주소: http://gwangjukr.china-embassy.org/kor/zt/journal/\)](http://gwangjukr.china-embassy.org/kor/zt/journal/)에 업로드 되어 있어 다운 받고 열람

하시며 주변분들께도 추천해 주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장기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면 chinaconsulate@hanmail.net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제 시간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소식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 국 의 매 력



청해 유채꽃밭

한국에서 유채꽃이라 하면 사람들은 먼저 제주도를 떠올린다. 섬 전체에 널리 만개한 유채꽃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한다. 하지만 많은 한국 친구들은 어쩌면 중국 서부의 청해성(青海省)에도 넓은 유채꽃 밭이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이 곳은 중국 북방 유채 생산지역으로, 매년 7월 초부터 곧 유채꽃이 만개한 계절에 접어 드는데 꽃이 피는 시기는 대략 7월 5일~25일, 가장 좋은 꽃구경 시기는 7월 10일~20일이다.

청해 유채꽃 꽃놀이 지역으로 주요 장소가 2곳 있다.

1. 청해호(青海湖) 호숫가. 이 곳은 여름 평균 기온이 18℃에 불과하여 사람들에게 맑고 상쾌한 느낌을 준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세계 각지의 관광객과 촬영 마니아들은 이 곳의 황금빛을 보기 위해 모여 드는데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매우 북적거린다. 호수를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과 매우 좋은 도로가 있어 매년 7월이면 여기서 “청해호 사이클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360km에 달하는 호숫길은 사이클 선수인들에게는 더욱이 순례의 길이라 기억된다. 이곳에 심어진 유채꽃은 대부분 트랙터로 파종하는데 꽃밭 이랑마다 구불구불한 기복이 몹시 먼 곳까지 뻗어있어 그 선이 간단하면서도 한가로움을 잃지 않는다. 고원지역의 푸른 하늘과 흰구름이 돋보이는 아래 끝없이 넓게 펼쳐진 황금색 꽃밭은 그 모습이 몹시 찬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탄복을 자아낸다. 서닝(西寧)시에서 청해호로 가는 길 역시 유채꽃이 두루 심어져 있고, 동쪽지역 가장자리 산지인 일월산

(日月山) 계단식 밭에도 분포되어 있어 층층마다 풍부함이 느껴진다. 서쪽의 일월산도 유채꽃이 청해호 언덕에 평평하게 퍼져 있어 한눈에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관을 이룬다. 청해호에 작은 부도가 있어 여행객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면 황색 조각들은 쪽빛의 하늘과 호수에 더해져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성한다.

2. 먼위안(門源) 유채꽃밭. 북으로는 기린산에 기대어 있고, 남으로는 대관산과 이웃하며, 서쪽 영안성을 시작으로 동쪽 옥룡탄까지 닿아 총 면적은 535km²(참고: 광주광역시 면적 약 501.34km²)에 달하는데 호문천(浩門川) 전체가 꽃바다로 되어 한걸음의 금색 외투에 덮힌 것처럼 넓고 광활하다. 7월 초, 먼위안의 유채꽃은 아직 가장 왕성한 계절은 아니지만 들뜬 모두 청록색으로 칠해진 가운데 아주 조금의 열은 황색이 스며들어 오히려 이때 가장 풍부한 색을 띤다.

7월 중순, 호문천 전체는 황금빛으로 고원지역의 짙은 남색 하늘 아래 유채꽃을 두 언덕 사이에 끼워 넣은 듯하고 무성한 꽃은 비단처럼 100여km 가까이 끝없이 넓고도 길게 이어져 마치 황금색의 넓은 바다처럼 푸른 하늘과 흰구름, 눈 덮인 산이 서로 어울려 빛을 이룬 것 같다.

여러 한국 친구분들이 청해 유채꽃 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러 오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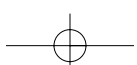
인 국 에 있 는 중 국 인



10월 9일, 광주·전남 중국유학생연합회의 주최로 "한국 광주·전남지역 중한 대학생 문화교류제"는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거행되었다. 염봉란 중국총영사, 조성수 남부대학교 총장, 강원구 한·중문화교류회 회장, 피길연 광주시체육회 비서장, 황봉림 중국유학생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광주·전남지역 20개 대학교에서 온 중한 대학생 1,000여명이 참가하였다. 행사에는 탁구, 100m 달리기, 줄다리기, 투호 등 재미있는 경기로 학생들 사이의 협력정신과 진취적인 단체정신 및 넘치는 젊음의 생기를 보여줬다. 문화교류제 기간동안 중국 사진 100여장을 전시하여 많은 한국 대학생이 재미있게 관람했다. 이러한 문화특색이 있는 교류제에 대하여 중·한 양국 대학생은 모두 좋은 평가를 보냈다.



2010세계 장애인 탁구 선수권대회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46개 국가와 지역의 295명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였다. 중국대표팀은 대회 금메달 14개(대회 금메달 총 29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였으므로 종합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선수 거양(葛杨)과 구가이(顧改)가 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염봉란 총영사는 중국 대표팀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선수들이 몸의 고통을 극복하고 전력을 다해 분투하는 정신을 칭찬하고 외국에서 조국을 자랑해준 것에 감사를 보내왔다. 경기 중에 광주의 중국 유학생들도 중국팀에게 열심히 응원했다.





激情盛会 和谐亚洲

Thrilling Games Harmonious Asia

광저우 아시안게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2010년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광저우에서 진행되었다. 광저우는 베이징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아시아 게임 주최권을 획득한 도시였다. 전 아시아 45개 국가와 지역의 대표가 참가하여 42개 종목 476개의 금메달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었다. 각 대표단의 총 인원수는 14,358명, 그 중 운동선수 10,156명, 수행자 4,202명, 언론 기자 8,466명으로 아시안 게임 사상 최다 종목과 최다 참가자의 기록을 세웠다.

● **대회 슬로건** 열정적인 성대한 모임, 조화로운 아시아(Thrilling Games, Harmonious Asia)

● **대회 엠블렘**

우아한 곡선으로 솟아오르는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렘은 육상 트랙의 레인과 광저우의 유명한 렌드 마크인 다섯 마리 천상의 염소상 실루엣, 그리고 영원히 타오르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 디자인은 광저우를 완벽하게 상징하고 광저우인의 스포츠에 대한 열망과 대회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다.



● **대회 마스코트**

광저우 아시안 게임 마스코트인 "리양양"은 "소원하는 바 모두 행동한 평화, 조화, 그리고 행복: Xiang He Ru Yi Le Yangyang"의 뜻을 갖고 있다. 귀엽고 스포티함이 돋보이는 다섯 마리의 염소는 이번 광저우 아시안경기대회의 마스코트는 특색있는 광저우만의 문화와 역사를 나타낸은 물론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복을 전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에 그 상서로움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광저우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한다.



● **경기종목**

육상, 수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 수구, 양궁, 배드민턴, 야구, 농구, 권투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기계체조, 리듬체조, 체스,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 5종, 조정, 요트, 바둑, 사격, 소프트볼, 탁구, 태권도, 테니스, 철인 3종, 배구, 역도, 레슬링, 볼링, 당구, 크리켓, 민스스포츠, 스쿼시, 우슈, 세팍타크로, 럭비, 인라인롤러, 공수도, 카바디, 폴로, 드레곤보트



국가별 최종 메달순위

순위	국 가 별	금	은	동	합계
1	중국	199	119	98	416
2	한국	76	65	91	232
3	일본	48	74	94	216
4	이란	20	14	25	59
5	카자흐스탄	18	23	38	79

廣州市 소개



광저우시는 광둥성(廣東省)의 성도로 광둥성 중남부에 위치하고, 면적은 7434km², 인구는 약 1,400만명이다. 전설에 의하면 주나라 때 남해 쪽 하늘에서 5가지 빛깔을 띤 상서로운 구름이 두둥실 떠돌더니 5명의 신선이 5마리 염소를 타고 내려오고, 마을 주민들에게 벼이삭을 나눠주어 그 땅이 영원히 풍요롭고 기근없기를 기원했다. 후에 그 염소들은 돌로 변해 남겨졌다고 전해지는데 이 때문에 광저우는 "양성(羊城)"이란 별명이 되고 "오양"이 광저우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광저우는 2,2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며, 기원전 9세기 周나라 때 "백월(百越)"이 "초정(楚庭)" 성을 건립한 것이 최초 기록이다. 진시황이 영남(嶺南)을 통일한 후 남해군을 세우고 군청을 "번우(番禺)"에 설치하였는데 곧 지금의 광저우이다. 삼국시대에 뚝나라의 손권이 교주(交州)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일부를 최초로 "廣州"란 이름을 지어줬다

광저우는 중국 원양항해의 우수한 항만이자 주강(珠江)유역의 수출입 항구로 진나라 시대에는 이미 번영한 대도시였다. 당나라 이후는 "해상 실크로드"의 시발항이자 중국 최초의 통상 항구였으며, 청나라에는 유일한 대외무역 항구로 변화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광저우 경제는 쾌속히 발전해왔고 공업과 농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대외경제무역의 활발히 발전으로 종합적 경제실력은 전국 도시 중 종합 3위를 차지했다.

2009년도 광저우시 지방 GDP는 9,112.76억 위안에 달하며 한화로 160조원이나 되어 전년 대비 11.5%로 증가했다. 광저우시와 한국 광주광역시는 1996년에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했다. 2007년 11월 1일, 장광녕(張廣寧) 광저우시장은 광주시 방문시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으로 추대받았다. 2009년 11월 14일, 광저우시 정부는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홍면특별명예상"을 수여했다.





총영사관한국

저희 총영사관은 지역 시·도민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과 중국어를 사랑하는 한국 친구에게 학습의 장·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오는 2010년 12월 31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8회 총영사관의 날'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중국영화〈운수요(雲水謠)〉(언어 : 중국어, 자막 : 중국어)과 하남성 관광 홍보물〈하남 여행〉을 방영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10년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gzzlg2010@gmail.com 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신청하신 순서대로 30인의 신청자에 한하여 회신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회신문을 받으신 분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시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6번지 (우 503-230)
 중국 비자, 여권, 공인증 문의 : 062) 351-8857
 영사 면담, 방문 예약 : 062) 385-8874
 영사 보호 담당 : 062) 385-8873
 팩스 번호 : 062) 385-8880
 홈페이지 :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총영사관 소식지 홈페이지 : <http://gwangju.kr.china-embassy.org/kor/zt/kanwu/>

